

나주서 1050여명 참가 전국공기총사격대회

광양선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전남의 겨울, 스포츠 열기 뜨겁다

사격 오늘·축구 13일 개막

전국 사수들이 전남을 찾는다. 축구 그라운드에서는 백운기 열전이 펼쳐진다.

제4회 전남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나주 전남도종합사격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초, 중, 고, 대, 일반팀 등 106개 팀 1050여명이 참가해 국제사격연맹의 규정에 맞춰 10m 공기소총과 공기권총 두 종목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나눠 각자의 기량을 겨룬다.

이번 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를 시작으로 전남도종합사격장에는 3개의 전국사격대회가 개최돼 '사

격 메카'로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총 7000개팀 6000여 선수 및 임원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3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지난 2008년 신축된 전남도종합사격장은 10m 90사대, 10mRT 3사대, 25m 50사대, 50m 60사대, 클레이 3조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제규격의 종합사격장으로 오는 2015년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 경기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13일에는 광양에서 제16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개막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24일까지 12일간 광양 공설운동장 등 5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대한축구협회와 광양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축구협회와 광양

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31개 고교 축구팀이 참가해 명실상부한 고교 축구 최강을 가리게 된다.

13일 오전 10시 순천고와 경기고 광문고가 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막경기를 갖는다. 대회는 예선전 조별 풀리그를 거쳐 16강전부터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우승팀에게는 우승기와 장학금이 지급된다.

올해 대회부터는 유소년 축구발전을 도모하고 경기 출전 기회를 보장, 명품대회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저학년 리그를 신설했다. 저학년 리그에서는 12개 팀이 출전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나주서 전국 공기총 사격대회 개막

7~10일까지 4일간...전남도종합사격장

제4회 전남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전남도종합사격장(나주)에서 열린다.

전국 초중고와 대학, 일반팀 등 모두 106개 팀 1,050여 명이 참가한다.

국제사격연맹의 규정에 맞춰 10m 공기소총과 공기권총 2종목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나뉘어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올해 인천에서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다.

전남도종합사격장에서는 이번 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개의 전국사격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모두 700여 개 팀 6,000여 선수와 임원 등이 참가해 3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2008년 신축한 전남도종합사격장은 10m 90사대, 10mRT 3사대, 25m 50사대, 50m 60사대, 클레이 3조의 시설을 갖춘 국제규격의 종합사격장이다.
/김우관 기자

오늘 나주서 전국공기총사격대회 개막

제4회 전남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나주 소재 전남도종합사격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선 전국에서 초·중·고·대, 일반팀 등 모두 106개팀 1천50여명이 참가해 국제사격연맹의 규정에 맞춰 10m 공기소총과 공기권총 2종목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나눠 각자의 기량을 겨룬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올해 인천에서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전초전 성격이어서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

겁다. 전남도종합사격장에서는 이번 전국공기총사격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개의 전국사격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총 700개 팀 6천여 선수 및 임원 등이 참가해 3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기대된다.

지난 2008년 신축한 전남도종합사격장은 10m 90사대, 10mRT 3사대, 25m 50사대, 50m 60사대, 클레이 3조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제규격의 종합사격장이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 경기시설로 활용된다.

/이정민기자 genius@kdaily.com

남도일보

전국공기총사격대회 나주서 오늘 개막

4일간 제4회 도지사배...106개 팀 1천여 명 열전

전남도는 제4회 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나주 전남도종합사격장에서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선 전국에서 초, 중, 고, 대, 일반팀 등 106개 팀 1천50여 명이 참가해 국제사격연맹의 규정에 맞춰 10m 공기소총과 공기권총

2종목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나눠 각자의 기량을 겨룬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올해 인천에서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전초전 성격이어서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전남도종합사격장에서는 이번 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개의 전국사격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총 700개 팀 6천여 선수 및 임원 등이 참가해 3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승욱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따뜻한 기후, 깨끗한 공기, 맛갈스

런 음식이 잘 갖춰진 전남에서 앞으로 각종 국내 및 국제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앞으로 최적의 사격 전지훈련 메카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종합사격장은 지난 2008년 신축해 10m 90사대, 10mRT 3사대, 25m 50사대, 50m 60사대, 클레이 3조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제규격의 종합사격장이다. 오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 경기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전국공기총사격대회 나주서 개막

오늘부터 4일간 도지사배...전국 106개 팀 1천여명 열전

전라남도는 제4회 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나주 소재 전남도종합사격장에서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선 전국에서 초, 중, 고, 대, 일반팀 등 106개 팀 1천50여 명이 참가해 국제사격연맹의 규정에 맞춰 10m 공기소총과 공기권총 2종목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나눠 각자의 기량을 겨룬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올해 인천에서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전초전 성격이어서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전남도종합사격장에서는 이번 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개의 전국사격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총 700개 팀 6천여 선수 및 임원 등이 참가해 3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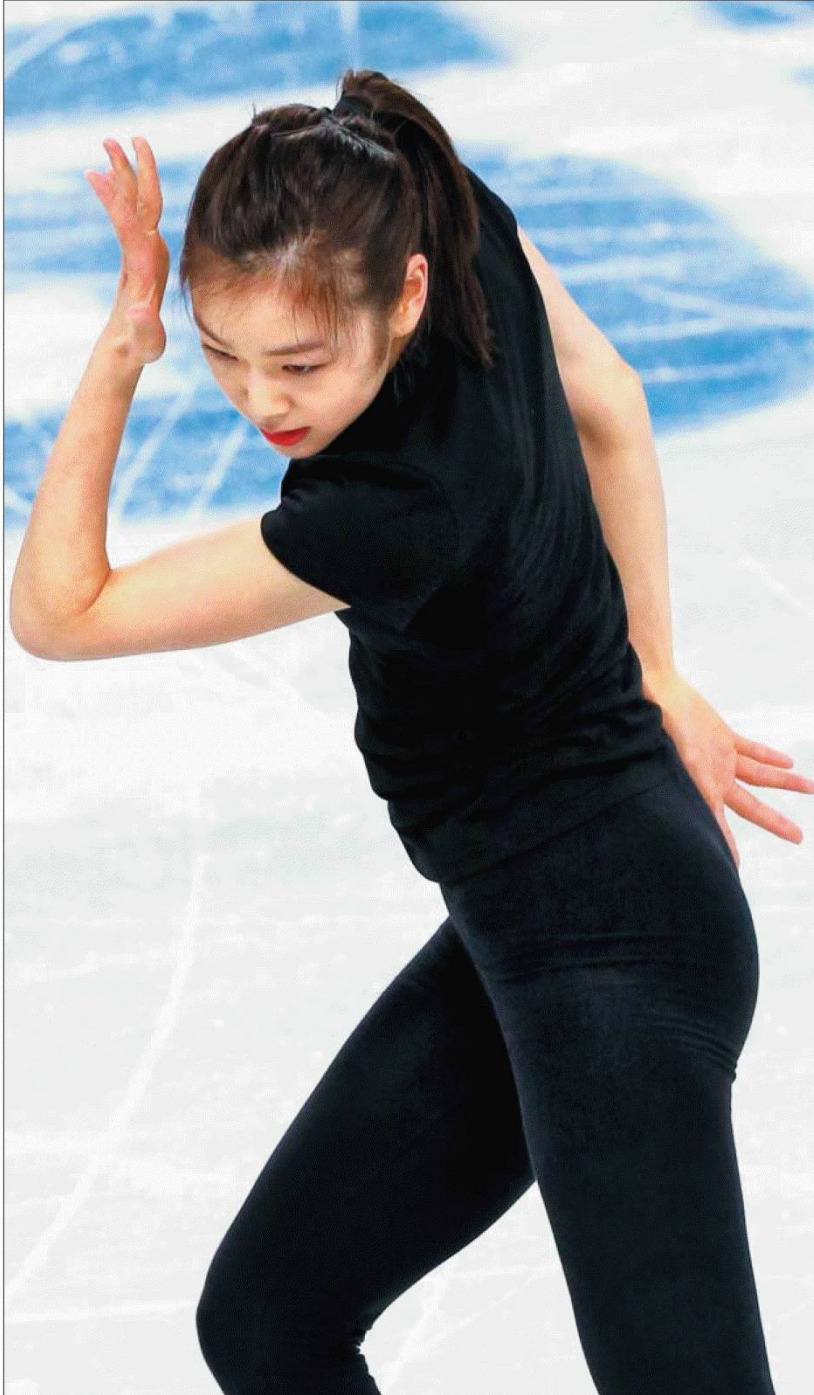
이승욱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따뜻한 기후, 깨끗한 공기, 맛갈스런 음식이 잘 갖춰진 전

남에서 앞으로 각종 국내 및 국제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앞으로 최적의 사격 전지훈련 메카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종합사격장은 지난 2008년 신축해 10m 90사대, 10mRT 3사대, 25m 50사대, 50m 60사대, 클레이 3조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제규격의 종합사격장이다. 오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 경기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종경 기자

빙질 나쁘다는 실전 무대에서... 연아는 6번 '퍼펙트 점프'



메인 링크에서 첫 연습

프리스케이팅 음악 맞춰 40분 훈련
"빙질 생각보다 좋다" 자신감 보여

곧바로 실전에 나서도 좋을 듯했다.

'피겨 여왕' 이 첫 공식 연습에서 완벽에 가까운 컨디션을 선보였다. 김연아(24)는 16일(현지 시각)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열릴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40분간 적응 훈련을 했다.

13일과 14일 보조 링크에서 몸을 풀었던 김연아는 이날 처음 메인 링크에 섰다. 대표팀 후배 김해진(17·과천고)과 박소연(17·신목고),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8), 우크라이나의 나탈리아 포포바(21) 등 4명과 링크를 나눠 썼다. 김연아와 같은 연습 그룹 배정을 받은 러시아의 올리아 리프니츠카야(16)는 불참했다. 앞선 단체전의 여자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모두 1위를 하며 러시아의 우승에 힘을 보탠 리프니츠카야는 소속 클럽이 있는 모스크바로 돌아가 훈련하다가 이날 저녁 다시 소치로 왔다.

16일 공식 연습에서 김연아는 프리스케이팅 배경음악인 '아디오스 노니노'에 맞춰 은반을 누볐다. 스페인 스텝은 건너뛰거나 간략하게 처리했는데, 점프는 7가지를 모두 시도했다.

연기 중반부의 트리플 러츠 때 1바퀴만 돌고 내려왔을 뿐, 나머지 6가지는 깨끗하게 성공했다. 트리플 러츠는 김연아의 점프 구성에서 핵심적이다. 3회전 점프 중 배점(기초점 6.0점)이 가장 높고, 김연아가 특기로 삼는 3회전 콤비네이션(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의 첫 점프이기도 하다. 러츠는 왼발의 바깥쪽 에지(스케이팅 날)를 사용해 뛰어올라야 한다. 이때 오른쪽 발끝으로 빙판을 찍어 차며 도약에 도움을 얻는다. 김연아가 러츠를 할 때는 왼발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모양이 확연하다. 그만큼 자세가 교과서적이다. 김연아에게 도전하는 러시아의 올리아 리프니츠카야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는 러츠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롱 에지(Wrong Edge·잘못된 에지 사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잦다.

이를 전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선 1위를 한 하뉴 유즈루(일본)가 점프를 하다 두 번 넘

어졌고, 2위 패트릭 첸(캐나다)도 세 번 실수했다. 피겨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경기 중에도 넘어지는 선수들이 많았다. 자연스럽게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의 빙질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김연아는 '빙산 궁전(아이스버그 팰리스)'과의 첫 만남을 순조롭게 마쳤다. 첫 공식 훈련을 마친 김연아는 "빙질이 생각보다 좋다"면서 "이런 곳 저런 곳에서 많이 해왔다. 여기라고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남자 싱글 경기의 실수가 빙질 문제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도 했다. "내게 빙질은 변수가 안 된다"는 자신감으로 들렸다.

김연아는 15일엔 하루 운동을 쉬고 쇼트트랙 경기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등 올림픽을 즐기며 재충전을 했다. 4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댄 첫 경기 나올 전 현지로 갔다. 같은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회가 임박해서야 움직였다. 하지만 막상 밴쿠버에 도착한 다음엔 두 도시의 시차(3시간)와 빙질에 적응하느라 쉴 시간이 없었다.

이번엔 첫 경기(19일 쇼트프로그램) 일주일 전인 12일 소치에 왔다. 한국과의 시차(5시간)에 적응하기에도 넉넉한 일정이다. 경기장 근처에 따로 숙소를 잡은 김연아는 함께 온 어머니 박미희씨가 지어주는 밥을 먹으며 힘을 내고 있다. 한국에서 전기밥솥도 가져왔다. 식사 시간이 매달릴 땐 선수촌에 들어가 끼니를 해결하기도 한다. 태릉선수촌 조리팀이 현지 '코리아 하우스'에서 만들어 배달해주는 도시락도 맛봤다.

일본의 아사다 마오(24)는 16일 오후 첫 메인 링크 연습을 소화했다. 피겨 단체전 쇼트프로그램에만 나섰다 3위에 그쳤던 아사다는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으로 이동해 일본 대표팀 전용 링크에서 담금질을 하다 15일 다시 소치로 왔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에 맞춘 프리스케이팅 연습을 했는데, 트리플 악셀(3회전 반)과 3회전 연속 점프 등 고난도 기술을 무난하게 구사했다.

아사다를 지도하는 사토 노부오 코치는 일본 언론에 "훈련은 일단 순조롭다"면서 "아사다가 하뉴의 우승에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치=성진혁 기자

김연아가 16일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스케이팅 경기가 열릴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13일과 14일 보조 링크에서만 훈련했던 김연아는 이날 처음 메인 링크에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김연아는 "빙질이 생각보다 좋다"며 "남자 싱글 경기에서 나온 선수들의 실수가 빙질 문제였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원중 기자